



한국의 리눅스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...

집단지성에 의해 개발되는 오픈소스의 효용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. 하지만 국제 개발자 커뮤니티에 국내 개발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내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리눅스 개발 서적이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이 책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. 실무 1500여가지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어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.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한 저자의 노고가 행과 행사이를 가득채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. 이 책이 완벽한 실무서적으로서 리눅스를 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아 국제적인 리눅스 개발자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.

한국리눅스파운데이션 대표 조광제

이 책을 읽고 내가 놀란 세가지 이유

이 책의 가제본을 읽고 나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.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고수가 되기 위한 비법서라는 것이었다. 나 또한 오랜 시간을 리눅스와 함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책이 국내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리눅스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라 생각한다. 이 책에는 리눅스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실무적인 모든 기술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. 이 책의 가제본을 읽고서 세번을 놀라고 말았다. 첫번째는 리눅스 서버관리의 모든 실무적인 기술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, 두번째는 꼭 필요한 기술들을 100% 실무적인 내용들로 구성하였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이 책이 리눅스 서버관리 기술을 많은 이들에게 확산하고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. 나는 이 책을 집필한 그를 만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. 그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순수함이 남아있었고 리눅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나를 숙연케하고 있었다. 나는 이 책을 리눅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한다. 그 이유가 앞에서 말한 세가지 이유뿐만은 아니다. 이 책을 집필한 저자의 진솔함과 순수한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집필한 이 책 또한 그의 눈동자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다.

한국리눅스유저그룹(LUG) 회장 김태용



학생들의 실무경험을 위해 더없이 좋은 책

가제본을 받고서 바쁜시간 쪼개어 힘겹게 이 책의 내용을 보았다. 이 책을 먼저 보게 되었고 나는 이 책이 평범한 리눅스 서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. 리눅스 기술서적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실무서적임을 알았기 때문이다.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책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. 이 책의 제목에는 실무기술 300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목을 보고 일러두기를 본 후 나는 1,500여개의 실무기술방법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이 책이 그의 통산 11번째 리눅스책이라는 것을 들었다.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어울린다. 그렇다. 그의 책은 진화하고 있음에 틀림없다. 이 책에는 그동안 그가 쌓아온 많은 노하우들이 실무적인 내용들로 녹아있는 듯하다. 내가 이 책의 가제본을 먼저 본 후에 추천사를 쓰겠노라고 흔쾌히 승낙한 것은 이 책의 내용과 분량 때문만은 아니다. 리눅스 서버를 관리하는 수많은 관리자들에게 그 어떤 리눅스 서적보다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

동의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영식 교수 (공학박사)